

기술사회연구회

일시: 2005년 9월 23일

교재: Peter Burke,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iderot
(Cambridge: Polity, 2002)

참석자: 김광호 교수, 김상배 교수, 김평호 교수, 문상현 교수, 배영자 교수, 임종수 박사,
전재성 교수, 조화순 교수, 조현석 교수

1. 지식의 개념

김평호 교수: 지식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김광호 교수: 지식이 권력(power)이기 때문이다.

배영자 교수: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책이다.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인프라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식 자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정치권력과 소비자들의 문제, 지식계층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현재의 시점으로 지식사 속의 주요 사건들을 다시 바라보길 권유해주는 점이 매력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식을 담는 새로운 인프라의 출현이 광범위한 사회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점이였다. 근대에서 분해된 학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김평호 교수: 미국에서 보던 논문 컬렉션 *'The Quantifying Spirit in the eighteenth century'* 이 떠올랐다. 버크가 특정한 시대와 주류 지성보다 주변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책은 1600-1700년대 유럽의 정신적 풍토를 지배한 수량적 사고방식, 계량적 사고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인지, 실제로 당시의 각 유럽국가들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화가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김상배 교수: 이 책은 Social History라기보다는 conceptual history에 가깝다. 비유를 들자면 지식은 신경망 신경체계 같은 것이다. 덩치가 커도 행동이 서툰 동물과 덩치가 작아도 예민한 동물이 있는데, 신경망이 발달한 동물이 가지는 권력이 지식이다. 특히, 근대에는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찌가 지금 디지털화와 유사한 생각을 했다. 당시에는 물건이 없이 정신적이고 논리적인 디지털화였다면, 현재는 존재론적이고 실재하는 디지털화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김평호 교수: 지식을 세계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지식과 그 주변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 계량적 사고가 근대

적 사고의 전형이 아닌가. (p. 135 통계학의 등장참조)

김광호 교수: 대표적인 계량적 사고는 1700년경 영국에서는 political economy로 독일에서는 베팅겐 대학에서 statics이다. 둘 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는 가로 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평호 교수: 당시에는 수량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숫자화 하는 것이 합리적 이성이었다.

김광호 교수: 이 책이 분석보다는 나열에 가깝다는 것이 아쉽다.

배영자: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만하임 등애다가 부르디외나 푸코까지 결합해서 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2. 지식의 저장

김평호 교수: 이 책에서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목독의 등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전까지의 책 읽기는 읽어주기, 큰소리로 읽기였다면, 책이 확산된 뒤에야 목독이 가능해지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자, 금서, 춘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사생활이란 것이 생기고 근대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조현석 교수: 낭독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다시 생기고 있다. 근대국가는 기본적으로 paper monger(먹는 괴물) 통계 등을 보존하는 국가와 관료가 통치술에 관련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라이즈 된 오늘날에서 다시 변화가 생겼다. 과학기술연감에서는 1990년대를 이야기하면서 10년 동안 만들어진 지식이 인류 역사 이래 생성된 지식전체보다 더 많다, 이전까지는 전부 프롤로그다라고 말한다.

김상배 교수: 정보혁명은 맞는 것 같은데 지식혁명은 아닌 것 아닌가. 인간의 유기체적인 특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을 기계로 가능하게 만든 것이 디지털화의 특징인 것 같다.

김평호 교수: 지식의 전파와 관련해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동도서기론이 떠오른다. 지식의 충돌 시 한중일 대응의 틀은 모두 같았다. 결정적인 흠이 있다면 기술이란 것 자체가 정신(철학)까지 규정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동도서기가 김옥균류의 문명개화론, 동도나마 보존하자는 수구적 자세로 후퇴하는 양분된 것은 서기를 너무 쉽게 보았기 때문이다.

문상현 교수: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느 선까지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네이버에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형태의 지식 공유방식이다. 따라서 지

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생겼다. 지식인의 영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근대 이전의 지식관이 정보혁명 이후에도 유지될 것인가. 지식공유방식에서 글피 오기. 지식 독점시에는 글이 어디있는지 아는 것만도 지식독점이었다.

김상배 교수: 지식검색인가 정보검색인가 역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조화순 교수: 분류체계가 지식공유와 전파에 더욱 도움을 주고 있다. 근대에 형성된 분류가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정보 축적자체가 많이 되다보면 방식이 더욱 바뀌어야 한다.

김상배 교수: 이미 방식이 바뀐 측면도 있다. 디지털적으로 처리하는 정보는 바코드 형태로 모든 정보를 수평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조화순 교수: 상세검색 등 이 방법이 점차 발전하게 될 것 같다.

김상배 교수: 또한 검색사이트가 새로운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검색 결과 순서, 인코딩 등도 다시 표준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임종수 박사: EBS는 지식채널을 표방하고 있다. 5년, 10년 전에는 지식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졌지만 신지식인, 지식인 등으로 매우 가까워져버렸다. 지식을 게이트웨이로 분류하고 표준화하는 포털이 생기면서 대중은 지식을 큰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지식의 경계가 희석되었다.

3. 지식의 생산

문상현 교수: 최근 '모아놓으니 좋다'는 엠파스 검색이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가 분류해놓은 것을 엠파스가 찾는 것에 대해 네이버가 불만을 제기한다. 네이버의 주장은 법적으로 소유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일단 결론이 내려졌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다.

조현석 교수: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자. loosely coupled, tightly coupled 등으로 구분. 인지논리학 등이 생김. IBM의 몰락.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pc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방대한 조직이 있었지만 왜 pc를 하자고 결정하지 못했나. 결정을 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지는 못한다. 신념(belief) 등의 요소도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김상배 교수: 정보의 개념사도 필요하다. 19세기 생겨난 개념인 inform은 meta+form에서 형상과 질료를 의미한다. 현상에 있는 reality를 어떻게 담아내는가. 버그만 책에 보면 3가지로 구분. 고대에서는 reality as information, 근대에 오면서 information for reality 청사진으로서, 현대 information as reality라 할 수 있

다. middleware, firmware 적인 정보

김광호 교수: 지식과 정보가 배타적인 개념인가? 이 시대에는 지식이 다음 시대에서는 정보로 변화하기도 한다. 상식 처럼.

조화순 교수: 어떤 정보가 지식이 되는가. 나한테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결국 사용자의 문제인가.

김상배 교수: 정보를 주는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다

임종수 박사: 원래 뉴스는 정보와 가까운 개념이었는데 뉴스를 지식처럼 사용하는 경우 많다.

김상배 교수: 언론이 지식을 생산하는 부분까지 월권하게 된 것 같다.

김광호 교수: 지식과 정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쓰지만 data, 지식, 정보의 구분이 별로 설득력 없을 때도 있다.

김평호 교수: 내가 생각해도 이 구분 자체가 중요한 연구 어젠다가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오늘날의 지식생산자는 지식생산 조직에서 어떤 권위를 가진다기 보다 one of 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근대역사가 권위의 실추 역사이다.

조현석 교수: 인터넷이 지식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다

배영자 교수: 멋있게 말하면 기술의 민주화, 지식의 민주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의 질의 상승은 아니다. 나이의 Q Giver는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것인지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one of 여도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지식이다.

조현석 교수: 고급 지식인들이 끈을 안놓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진짜 나올 수 있는가. 지식의 회의론.

김상배 교수: 지식사와 외교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재성 교수: 교육제도 문맹을 등과 연관, 그림을 그리거나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닐까